

## 美·日間の 쌀 市場開放 紛爭과 日本의 選擇

崔 龍 圭\*

- I. 序 論
- II. 紛爭의 過程과 背景
- III. 國際情勢의 흐름과 日本의 事情
- IV. 日本의 選擇

### I. 序 論

지난 10月29日 미국의 通商代表部(USTR)는 全美精米業者協會(RMA)가 日本의 쌀市場 開放을 요구한 두번째의 提訴를 却下하였다. 이 문제는 美·日 二國間 問題가 아닌 GATT의 多角的 貿易交渉(우루과이 라운드)에서 協議하는 것으로 兩國이 合意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쌀 問題는 兩國에 있어서 극히 政治的 要素를 포함하고 있어 만약 受理된다고 하면 심한 “美·日貿易戰爭”으로 발전될 公算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日本에 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특히, USTR의 이 결정은 條件付로서 12月の GATT 協議時 日本으로 하여금 쌀問題에 적극적 對應을 보여 주지 않을 경우 RMA의 再提訴를 勸告할 것임을 못 박아, 日本政府로서는 國內으로는 “한톨의 쌀도 輸入할 수 없다”는 農協을 中心으로 하는 農民의

심한 反撥과 함께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실 몇 해전만 하더라도 日本의 쌀 市場開放 問題는 전혀 提起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美國官吏들의 希望事項으로 가볍게 받아 들였던 것이었는데 1986年 9月 RMA의 1次 提訴를 계기로 急進展함으로 상당히 짧은 期間에 既定事實化된 결과가 되었다. 12月4日~8日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開催되는 우루과이라운드 중간 Review의 閣僚會議에서 農業補助金이나 輸入制限을 10年內에 全廢하자는 美側의 主張과 農業補助金の 현수준에서의 凍結을 주장하는 EC와의 對立에서 日本의 本心은 EC의 意見이나 쌀問題 때문에 선뜻 EC案에 同調할수 없는 어정쩡한 位置인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日本으로서의 同協議에서든 또는 그 후 빠른 時期에 구체적 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再提訴와 通商法301條에 의한 報復措置로 이어지는 一連의 事態를 豫見해야 한다.

美國으로서도 그간 최대의 縣案이었던 對日 牛肉·감귤류 自由化問題가 解決된 터라 남은 가장 큰 農產物이 쌀이기 때문에 聖域化로 굳게 닫혀져 있던 日本의 쌀 市場을 어떠한 형태로든 열어 단 계적인 完全自由化로 이끌어내어 對日貿易赤字의

\*農林水産部 農産統計擔當官.

解消를 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日本과 美國의 쌀 市場開放紛爭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였으며, 미국 RMA의 提訴와 그 배경은 무엇이며, 兩國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國際貿易의 흐름과 좁아져 가는 日本 選擇 幅은 어느 程度인가를 究明해 보고자 한다.

## II. 紛爭의 過程과 背景

### 1. 美·日貿易摩擦過程과 쌀問題의 擡頭

#### 가. 美·日의 貿易摩擦의 過程

우선 日本과의 貿易摩擦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第1次 石油危機後 黑字國責任論이 강하게 주장된데서 基因된다. 다시 말하여 經常收支가 黑字인 나라는 그것 만큼 外國으로부터 購買力을 뺏는 결과가 되어 소위 黑字國의 不況과 失業을 外國에 輸出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주장으로 美國을 중심으로 그 論議가 活潑하여 런던(1977年)과 본(1978年) 先進國頂上會談에서 經常收支의 黑字國인 日本과 西獨이 自國의 國內景氣를 자극하여 높은 經濟成長을 達成하여 世界經濟를 主導해야 한다는 意見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특히, 美國으로서는 100억불이나 넘는 對日貿易의 入超에 直面하여 日本에 대하여 1977年 가을에 ① 經濟成長率을 높일 것(7~8%) ② 經常收支의 赤字時期를 明示할 것 ③ 工業製品輸入比率을 높일 것 ④ 輸入制限品目數를 줄이고 輸入쿼타를 확대할 것 ⑤ 關稅率 引下를 早期에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요구하였다. 바로 그 당시 1973년에 시작된 東京라운드가 國際의 農產物價格의 高騰, 石油危機의 발생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던 것을 앞서의

先進國頂上會談에서 그 촉진을 合意하였던 것이다. 특히, 당시 日本의 輸出이 급증하여 큰 타격을 받은 各國이 일제히 日本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TR交渉中에서 名國과 二國間 또는 多國間 交渉이 계속 되었으나 특히, 최대의 焦點은 美·日 農產物交渉이었다. 이 交渉에서 美國은 牛肉, 감귤류, 과즙의 3品目の 自由化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1年餘의 協商을 거쳐 결국 自由化가 아닌 1978년부터 5年間の 輸入쿼타의 증가로 美國에게는 실질적인 利益을 얻는 것으로 妥協되었다. 東京라운드는 이와 같은 美·日合意에 이어 EC, 오세아니아, 開發途上國과의 교섭을 거쳐 1979年 4월에 終結하였다. 그리고 그후 2年間은 TR의 妥結과 第二次 石油危機發生으로 國際貿易問題는 小庚狀態로 이어 갔다. 그러나 1981년에 레이건 行政府가 발족하면서 政治, 外交의 으로 “강한 美國”의 實現을 위한 行動을 開始하기에 이르고 특히, 對日貿易의 赤字增大에 直面하여 日本에게 貿易不均衡의 是正을 요구하면서 그중 農產物의 市場開放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美·日間의 貿易不均衡은 일본의 貿易制度의 “不公正”에 原因이 있다고 보고 이의 典型이 日本 農產物의 非自由化品目の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에 호응하여 財界를 중심으로 하는 日本의 經濟團體들이 일제히 貿易自由化를 요구하는 提案을 한 점이다(註: 1982年 4월 經因連「對外經濟摩擦改善에 관한 見解」 1983年 1月 政策構想 Forum 「日本의 安全과 繁榮을 世界와 함께－ 國際經濟政策에 대한 提案」 1983年 9月 經團連通商對策委員會「自由貿易體制의 維持, 強化에 관한 見解와 提案」 등). 이로써 日本의 輿論은 兩分되었고 한편 美國에게는 對日壓力을 加重하는 自信感을 주게 되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牛肉, 감귤류의 完全自由化의 결정(1988年 6

月 決定, 牛肉은 1991년부터 감귤류는 1992년부터 自由化)을 앞당기는 契機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간 日本의 聖域인 쌀 市場開放 要求까지 이어지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후 다시 自由化가 아닌 輸入쿼타 增加를 1984年 4월에 合意 하였으며, 完全自由化는 1988年 4월로 연기된 셈 이었다. 특히, 이때 正式交換文書에는 “1988年 4月1日 이후에는 이들 農産物에 關하여 어떠한 輸入制限도 撤廢될 것을 期待한다”고 強調하였다. 또한 1983年 7월에는 非自由化 19品目中 牛肉, 감귤류를 除外한 12品目에 對하여 GATT 23條1項에 根據하여 協議의 申請(즉, 提訴)을 하였으며 이는 23條2項에 의한 小委員會의 Pannel을 걸쳐 이중 10品目は GATT違反으로 判定되었고(1988年初), 결국 日本은 이중 도저히 자유화가 어려운 연유 전분을 제외한 8品目の 自由化를 決定하였으며, (1988年 4月) 마지막으로 그간 絶대로 自由化 안하겠다고 公約해 오던 牛肉, 감귤류도 1988年 6월에 드디어 자유화 결정을 함으로 쌀을 제외한 거의 主要 農産物은 자유화하기에 이르렀다.

나. 쌀의 市場開放問題의 擡頭

美國이 日本의 쌀市場에 對하여 적어도 公式的으로 1986年 9月 10日 RMA의 提訴 때까지는 協商의 Table위에 올리지 않겠다고 公言(USDA) 하여 왔다.

가끔 간헐적으로 農務長官 등이 日本에의 쌀 輸出에 對한 관심을 표하거나 日側이 사주었으면 하는 정도의 표시를 해 왔다. 특히, 美農務省(USDA)은 日本이 美國 農産物의 최대의 顧客이므로 好意的으로 日本 農民들의 심한 반발을 보일 쌀 문제에 對한 言及을 피하여 왔고 따라서 日本도 農林省을 중심으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81년까지는 輸出好調 등으로 生産이 활발하였던 미국의 쌀 사정이 1982年, 1983年の 過剩生産과 태국과의 價格競爭力喪失에 따른 輸出의 急減으로 生産農場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減産政策(30%~35%의 面積)에 生産者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RMA와 出身州의 議員들이 日本의 쌀 市場開放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對日 經常收支 赤字의 增大에 고민하던 USTR도 이에 同調하여 쌀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당시 가장 懸案이었던 牛肉·감귤류의 交涉解決에도 영

表 1 美國 日本의 貿易 平衡 動向

單位: 億 圓

		1975年	198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美 國	貿易 平衡	63	△ 305	△ 334	△ 450	△ 1,086	△ 1,230	△ 1,608	△ 1,602
	그중 農産物	124	232	236	185	191	115	54	72
	非農産物	△ 61	537	△ 570	△ 713	△ 1,277	△ 1,345	△ 1,662	△ 1,674
日 本	貿易 平衡	△ 21	△ 107	69	205	336	461	827	797
	그중 農産物	△ 108	△ 167	△ 155	△ 158	△ 178	△ 160	△ 172	△ 201
	非農産物	87	60	224	363	514	621	999	998
對美 貿易 平衡		△ 5	70	122	182	331	395	514	521
本 國	그중 農産物	△ 37	△ 70	△ 63	△ 68	△ 75	△ 61	△ 58	△ 71
	非農産物	32	140	185	250	406	456	572	592

資料: US Foreign Agricultural Trade Statistical Report, 大藏省「日本貿易統計」.

註: 美國의 數値는 會計年度(10~9月) 베이스임.

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특히, USTR은 모든 문제들을 GATT의 規定에 適用함으로써 日本 農林省에서 USTR을 GATT屋이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1986年 9月10日에 RMA가 USTR에 提訴함으로써 마침내 美·日의 쌀 市場開放紛爭이 公式化되었다. 더욱이 1988年 6月 美·日間의 牛肉·감귤류 自由化問題가 매듭지음으로 하여 美國으로서는 日本의 農産物中 남은 쌀로 Focus를 맞춰가기로 하고 드디어는 1988年 9월에 RMA에 의한 二次提訴에 이르게 되었다.

## 2. 全美 精米業者協會(RMA)의 提訴

### 가. 1次提訴

美國의 精米業者協會는 1986年 9月10日 USTR에 美國의 1974年 通商法 301條 A項 2에 根據하여 「美國의 通商에 있어서 不合理한 것」에 日本의 쌀 輸入規制가 해당된다고 보고 提訴를 하였다. 이 不合理 (unreasonable)은 「美國이 關係하고 있는 國際法上의 權利에 반드시 反하는 것은 아니지만 不公正 또는 不公平하다고 보여지는 모든 措置, 政策, 또는 慣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日本의 쌀輸入規制가 왜 不公正 또는 不公平한가의 論據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 美國에서 생산된 쌀의 품질이 國際적으로 通用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日本 市場에도 適用可能하며

② 價格面에서도 美國米가 日本 市場에 참여할 수 있는 充分한 根據를 갖고 있다. 이는 日本과 美國의 米價 差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價格差의 觀點에서 볼 때 日本 市場에의 쌀 輸出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 美國의 生産者에게 公平내지 公正한 市場의 機會를 拒否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1986年の 日本 生産者米價는 美國의

10倍에 이른다는 것이다(당시 日本은 噸당 311, 133엔, 1불 162.7엔으로 換算하면 약 2, 100불이 되며, 美國의 米價는 噸당 215불이므로 10倍가 된다는 것임). 만약 日本이 現行輸入禁止를 撤廢하면 美國의 쌀 수출이 245萬톤이 늘고, 輸出金額이 16.5억불이 增加할 것 (피어슨教授의 推定)이며, 世界의 쌀 貿易量이 3割증가할 것 (World Bank 推定)이라는 資料를 첨부하였다. 따라서 美國政府는 ① 日本政府가 行하고 있는 쌀의 輸入數量制限을 대폭적으로 自由화 하든지 완전히 철폐하여야 하고, ② 美國産 쌀의 相當部分의 消費振興을 위한 日本政府의 效果的 施策, ③ 食糧廳에 의한 美國産 쌀의 買入을 주장하고 만약 日本政府가 이것을 同意하지 않으면 大統領은 日本製品에 관하여 報復關稅나 數量制限 등 可能한 모든 措置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6年 10月23日 야이터 USTR代表는 日本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問題交涉을 表明하였으므로 이를 棄却한다고 發表하였고 다음 날인 10月24日 日本의 가토農相은 우루과이라운드교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今後 多國間에 결정해 나갈 문제라는 뜻을 밝혀 美·日 쌀 市長開放紛爭의 첫 回를 마쳤다.

### 나. 2次提訴

그후 약 2年間에 걸쳐 美國은 린 農務長官, 야이터 代表, 술츠 國務長官 등이 日本의 상대인 農相, 外相, 駐美大使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 쌀 問題에 대한 二國間協議내지는 UR에서의 협의를 주장하였으며, 日本은 二國間協議에는 應할 수 없으며, 多國間協議에서 農業補助金이나 美國의 웨이버品目과 함께 論議해야 한다고 一貫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1988年 9月14日 RMA는 RCM D(美國米市場開發協議會)와 共同으로 包括貿易

法에 의하여 改正된 新通商法 301條를 根據로 하여 美通商代表部에 再提訴를 하였다. 그 提訴의 理由로 다음 다섯 가지를 지적하였는 바

① 1961年 以來 日本政府는 쌀 輸入의 실질적 금지를 통하여 國內生産農家의 國際競爭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여 왔다.

② 1987年에 있어 食糧廳이 輸入許可한 양은 國內消費量의 0.2% 以下이다.

③ 日本政府는 쌀 生産에 많은 補助를 하고 있으며, 生産者米價는 1960년에는 거의 國際價格에 달하였음에 불구하고 1988년에는 國際價格의 8~10배에 이른다.

④ 1988年에 日本의 消費者는 쌀에 대하여 거의 350억불을 支拂할 것으로 보이나 輸入을 하게 되면 年間 支出額은 거의 280億불이나 削減할 수 있다.

⑤ 캘리포니아 南部의 쌀 生産者는 生産增加, 輸出增加, 高收入의 이익을 享受할 수 있으며, 美國의 納稅者도 쌀生産費用의 실질적 저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의 쌀輸入의 실질적 禁止措置는 數量制限 및 다른 手段에 의한 輸入制限을 違法이라고 하는 GATT 제11條에 위반되고, 日本의 쌀政策은 301條下의 「正當化될 수 없음」事項에 해당될 뿐 아니라 美國의 쌀 生産者에게 公平 내지는 衡平의 競爭機會를 否定하고 있어 301條의 「合理的이지 않음」事項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結論的으로 美通商代表部는 日本政府가 4年 以內에 國內需要의 10%분에 대하여 外國쌀 生産者로부터 輸入을 認定하는 內容의 合意를 위한 協議를 開始해야만 하며 1年째는 國內需要의 2.5%, 2年째는 5.0%, 3年째는 7.5%, 4年째는 10%의 단계적 輸入을 특히, 4年째에 가서는 輸入量 증가를 위한 새로운 교섭을 해야만 하고 日本政府

가 이 (ACCESS)를 拒否할 경우 USTR은 美國 市場에 輸出되는 日本製品에 대하여 關稅 및 數量制限을 加하는 制裁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提訴에 대하여 45日內에 可否의 判斷을 내려야 하는 (303條) USTR은 1988年 10月28日 다음과 같은 條件付棄却을 결정하였다. ① 提訴는 棄却한다. ② 日本의 쌀 制度는 變명의 여지가 없이 美國 및 다른 나라의 쌀生産者에게 不利益을 주고 있으며, 挑戰받지 않으면 안된다. ③ 문제는 日本의 쌀市場開放을 정말로 實現시켜 나가는데 成功의 可能性이 높은 方法으로 301條보다는 우 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取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④ 301條 提訴를 受理하게 되면 GATT의 紛爭處理過程을 利用하게 되며 GATT에서 이긴다고 해도 日本은 主權國으로 GATT判定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그 경우 報復은 할 수 있다고 해도 最終的으로 美國産 쌀의 對日輸出은 實現할 수 없게 되며 ⑤ 12月初 몬트리올에서 開催되는 UR의 中間레뷰에 있어서 쌀문제를 日本이 UR 農業交渉의 內容 (Context)으로 해결할 約束(Commitment)을 公式的으로 表示할 機會를 주게 되며 ⑥ 이 中間레뷰에서 日本이 農業交渉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게 되면 本件提訴를 受理하지 않은 判斷이 옳았다는 證明이 되며 ⑦ 만약 中間레뷰에서 日本이問題의 論議에 協力的이지 않는다면, UR에서 쌀 문제해결의 약속을 행하지 않는 것이 分明해질 경우 本決定을 再考할 用意가 있으며 그 경우 301條에 의한 再提訴를 권장하며 이는 레이건 政權下에 決定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USTR이 表面的으로는 以上の 諸理由를 들어 棄却하였지만 실제로는 다음 몇 가지 理由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쌀이 GATT上 國家貿易品目으로 輸入制限에 대한 該當國家의 措置가 다소 認定되고 있으며, 美國內에서 쌀

生産者數가全體農家數에 비할 때 미약한 정도일 뿐 아니라 쌀問題에 대한輿論의強度도 심하지 않고, 또한 만약 早急に報復措置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日本의 심한 反撥 특히, 自民黨政權의 政治的 基盤인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게 되며, 自民黨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 豫想되어 현재 비교적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는 美·日關係에 惡影響을 줄 憂慮가 있으므로 굳이 직접적인 二國間 問題해결 보다는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多者間協議를 택하여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對外的 共感帶도 형성할 뿐 아니라 對日壓力의 역할을 分散하므로 日本의 對美 反발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牛肉·감귤류 교섭에서와 같이 長期的으로는 日本이 쌀도 開放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計算이 아닌가 본다.

### 3. 背景—美國의 쌀 事情

#### 가. 美國의 쌀 生産과 消費

먼저 미국의 쌀 생산이 시작된 歷史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약 300年前인 1680~1690年代에 現在의 사우드 카롤라이나州的 찰스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약 200년에 걸쳐 美國의 米作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黑人奴隸를 사용한 Plantation 農業形態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그후 南北戰爭으로 노예해방과 더불어 Plantation農業이 消滅해 버리고, 루이지아나州에서 시작된 近代的 米作으로 발전하여 1899년에는 9.6톤의 쌀을 생산하였고, 19世紀末에는 텍사스州, 20世紀初에는 아칸소州, 1910년에는 캘리포니아州로 확대되어 이 4個州가 오늘날 美國米作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된 美國의 쌀을 이미 1950년에 1,408千톤(玄米)에 이르고 그후 1970년에는 3,039千톤, 1980년에 5,303千톤, 그리고 1981년에는

최대인 6,630千톤을 생산하였다. 이를 白米로 換算하면 5,801千톤으로 우리나라 1988年 生産量 6,053千톤과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1982年 이후 減産政策으로 1984~88年은 대개 490萬噸 前後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1970年代 初 300萬噸 수준에서 1980年代에 와서 輸出需要의 확대 등으로 生産量은 거의 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쌀을 種類別로 보면 1985年의 경우 長粒種(Indica Type)이 전체의 4分の 3인 370萬噸, 中短粒種(Japonica Type과 兩種의 交雜種)이 130萬噸 정도로 長粒이 압도적이다. 이를 州別로 보면 南部 아칸소州가 37%인 약 200萬噸, 캘리포니아가 약 4分の 1인 130萬噸, 루이지아나州가 15%인 85萬噸, 텍사스州가 16%인 90萬噸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다시 州別 種類別로 보면 南部인 아칸소州의 쌀 94.5%가 長粒인데 비하여 캘리포니아州는 長粒이 13%에 지나지 않고 中粒種 66%, 短粒種 21%로 구성되어 있어 日本人의 기호에 맞는 中短粒이 캘리포니아州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表 2 年度別 쌀 生産量, 面積, 在庫의 推移

年 度	收穫 面積	單 收	生産量	期末在庫
	千ha	tha	千t	千t
1955	739	2.7	2,028	1,256
1960	645	3.0	1,946	366
1965	726	3.8	2,768	299
1970	735	4.2	3,039	676
1975	1,134	4.1	4,661	1,338
1980	1,340	3.9	5,303	598
1981	1,534	4.3	6,629	1,778
1982	1,315	4.3	5,596	2,366
1984			3,600	
1985			5,040	
1986			4,880	
1987			4,800	

資料: 1) 農業, P. 294(비 基準 資料를 80%의 玄米로 換算)

2) 1984~87 生産量農業白書附屬 統計表, P100(〃)

表 3 種類別 指標, 1985-86 (玄米重量)

	收穫面積 (萬 ha)	單數 (t/ha)	生産量 (萬 t)	利 用(萬 t)			期末 在庫 (萬 t)
				國 內	輸 出	計	
長 粒	78	4.7	366	179	152	331	179
中·短粒	22	5.8	127	66	61	127	95
合 計	100	4.9	493	242	213	455	280

資料: USDA(美農務省), Rice: Out look and Situation Report, Sept. 86.

表 4 쌀 生産州別: 農場數, 生産量, 1農場當 平均, 1982 (玄米重量)

州	農場數	生産量 (萬 t)	1 農場當 平均		
			收穫面積(ha)	生産量(t)	單收(t/ha)
캘리포니아	1,322	133	172	1,004	5.8
아 칸 소	5,436	207	93	380	4.1
루이지애나	2,508	85	91	339	3.7
텍 사 스	1,157	90	180	774	4.3
全 國 計	11445	559	112	488	4.3

資料: USDC(美產務省): 1982 Census of Agriculture Vol.  
 註: 1982年 日本 쌀 生産農家戶當 平均作付面積 0.6ha 平均  
 生産量 2t.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美國의 쌀 貿易

美國의 쌀 輸出은 1970년에 174萬톤이던 것이 1981년에 301萬톤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1985년 196萬톤, 1986년 240萬톤으로 점차 減少하고 있다. 쌀 交易量을 世界全體로 보면 1981년의 輸出이 1300萬톤, 1985년 1,151萬톤, 1986년 1,216萬톤으로 1981~85년의 減少는 11.5%였으나 美國은 35%의 減少를, 즉 世界 貿易量보다 3倍 가까운 減少傾向을 보인 점이 최근 美國 쌀 輸出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태국은 1981년 370萬톤에서 1985년 399萬톤, 1986년 452萬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 쌀 輸出量이 감소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世界交易量의 감소경향인데 그간 主輸入國이던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의 開途國들이 Green Revolution 등을 통하여 食糧增産을 하여 輸入需要量이 감소한 것이 큰 要因이라고 하겠다. 둘째, 美國이 태국과의 價格競爭에서 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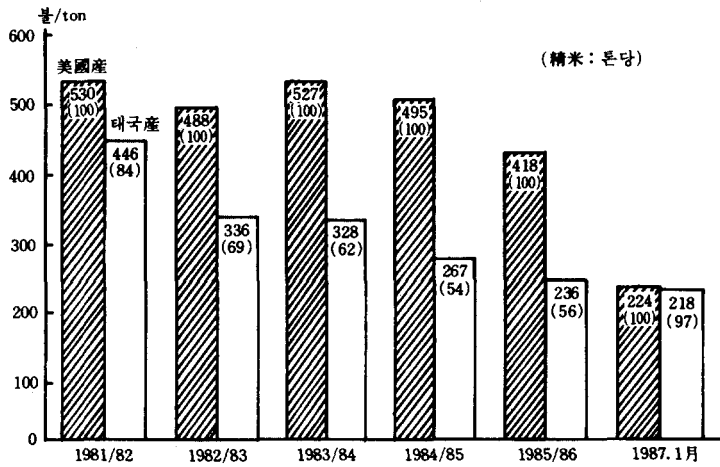
아래의 圖表를 보면 1981年 이후 1985年까지 美國의 쌀값이 태국보다 훨씬 비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美國 쌀의 價格競爭力이 떨어진 것은 所得保障과 價格支持政策으로 1980年代의 價格支持수준이 1981年의 農事法에 의하여 向後 4年間 事前決定된 점을 들 수 있다. 當時에는 그 후의 需給不均衡을 아무도 豫測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1982, 1983年 계속하여 過剩이 되어 美國의 가격지지 수준이 世界의 需給實情으로부터 떨어져나가게 되었으며, 事前決定에 의한 가격때문에 國際價수준으로 引下시키지 못하여 美國 쌀 需要가 減退하였다. 이는 世界交易量의 減少中에서도 태국 쌀의 輸出量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겠다. 또한 1980年代 前半의 高달러에 의한 美國 農產物 輸出價格이 높아졌던 점도 그 理由中 하나라고 하겠다.

다. 美國의 쌀 政策

美國은 穀物全體에 대하여 所得保障, 價格支持 및 生産調整이라는 制度를 취하고 있으며, 쌀은 이 중의 일부인 것이다. 먼저 生産調整 즉, 減産은 쌀이 過剩되기 시작한 1982년부터 실시하였는데 1982年 15%, 1983년 20%, 1984年 25%, 1985年 32%, 1986年과 1987年은 35%로 해마다 늘려왔으며, 이 減産計劃에 참가하는 農場(農家)에게만 所得保障과 價格支持를 해 주는 條件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計劃에의 參加與否는 農家의 自由

그림 1 네덜란드 토넨담항 引渡價格(CIF) : 美國產米와 태국산米



資料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Apr. 1987

表 5 쌀의 國際貿易

精米重量 : 万톤

		1960~65	1972~74	1981	1985	1983~85
輸 出 國	美 國	108	185	301	191	219
	E C	44	52	86	91	90
	中 國	64	179	60	101	93
	버 마	162	27	75	45	64
	파키스탄	11	55	110	96	111
	태 국	148	94	305	399	414
輸出全體		681	727	1,300	1,151	1,222
輸 入 國	E C	69	68	142	128	124
	이 란		16	60	60	68
	사 우 디		14	50	50	51
	인 도	53	5	90	1	—
	스리랑카	49	30	10	20	14
	인도네시아 한 국	106	169	54	—	—
	한 국		38	221	—	—
輸入全體		730	735	1,274	1,151	1,222

資料 : USDA : World Grain Situation and Outlook

의미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參加率이 문제이나 최근의 쌀 사정이 나빠짐으로 점차 高水準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1982年 78%, 1983年 96%, 1984年 87%, 1985年 90%, 1986年 94%(面積베이스)로 거의 대부분의 農場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所得保障은 目標價格(Target Price)

에 의하고 있다. 生産費調査를 하여 이 기준으로 하여 需給事情을 감안하여 目標價格을 정하는데 일본의 生産者米價와 近似한 것으로 1970年代에는 每年 다음 해의 수준을 정하였으나 1980年代에 들어와 1981년의 農事法에 의하여 1982~85까지의 4年間의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였으나, 1986年~90년까지는 1985年 農業法에서 一括決定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는 別個로 가격지수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融資單價(Loan rate)라고 하는 수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目標價格의 대개 3割 정도 아래의 수준으로서 當初는 生産費中 物財費를 補填할 수 있는 수준의 融資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다. 農民이 受取하는 最低市場價格을 지지하는 役割인 것이다. 이는 農民이 政府로부터 9個月間의 短期融資를 얻을 때 擔保穀物의 가격인 것이다. 쌀 收穫後 市場價格이 보다 높으면 融資를 얻을 필요가 없지만 市況이 좋지 않을 때는 일단 쌀을 擔保로 하고 政府로부터 9個月間의 용자를 얻게 되고, 이 期間中 擔保한 쌀을 市況이 좋으면, 꺼내어 販賣하거나 나쁘면 政府에 引渡해 버리면 된다. 擔保한 쌀을 政府에 인도하게 되



면 市場에 공급되는 쌀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市場價格이 올라가게 되며 이것이 融資單價 수준으로 近接하게 되며 融資價 수준의 가격이 지지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용자단가와 목표가격과의 差 즉, 부족분을 財政에서 지불함으로써 소득을 保障한다는 것이다 (<그림 2>의 원편 1984/85 참조).

그러나 앞서 설명한 가격을 4年間 一括事前決定하는 데에다 쌀의 과잉으로 인하여 美國産 쌀이 태국보다 2배나 비싸게 되어 輸出競爭力을 잃게 되자 1985年 農業法에 輸出價格을 태국産 쌀과 같게 하기 위하여 Marketing Loan (融資返濟免除) 制度를 導入하여 1985년부터 실시하였다.

이는 쌀을 담보로 하여 정부로부터 短期融資를 얻고 있는 農民은 國際價格으로 融資返濟가 認定되는 것으로 그 結果 美國의 쌀 農家は 國際價格으로 輸出하여도 再生産 가능한 目標價格이 보증되어 있어 國際競爭力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림 2>의 오른쪽 참조).

이 制度의 導入으로 85년에 180萬톤으로 떨어졌던 美國의 쌀輸出은 87년에 240萬톤으로 回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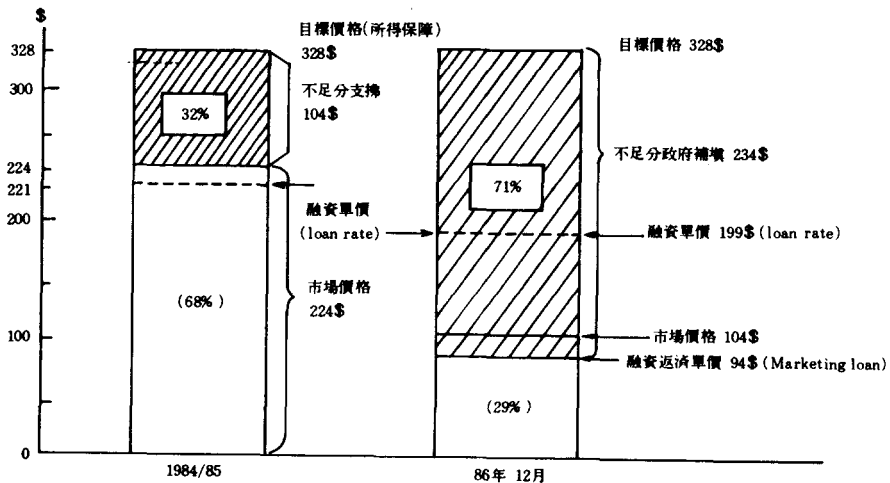
되었다.

그러나 이 制度에 의하여 生産者價格 즉, 目標價格의 半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수출하는 셈이며 이는 모두 정부의 財政負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쌀에만 1983年 3.3億불, 1986年 總10億불의 3倍 정도의 財政負擔이 늘게 되었다.

라. 美國의 쌀 生産可能性

앞서 1970年初에서 1981년까지 米作面積이 倍増함으로 過剩在庫가 발생하여 作付面積을 엄격히 制限하여 1987년에 35%까지 減産하고 있음은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쌀 생산에 有利한 條件이 주어진다고 하면 미국의 쌀 생산은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고 그 限界는 어느 정도인가? 특히, 미시시피流域에서 시카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충분히 벼가 生長할 수 있고 여기에 南東部 海岸平野도 米作의 適地로 보여지지만 그 모두가 栽培適地라고는 볼 수 없고 自然條件이 맞는 地域이어야만 한다 <表6>에서 推計資料를 보면 美國의 米作適地面積은 약 400萬ha로 그중 灌溉水의 利用可能性이나 輪作關係 등을 考慮하여 每年

그림 2 美國産 쌀의 價格支持·所得保障制度



資料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1987

表 6 美國 米作의 擴大餘地  
단위 : 千ha

地域別	適地面積	作付可能面積	收穫面積		
			73	78	81
全國計	4075	2014	879	1,238	1,535
캘리포니아州	268	204	162	202	240
아칸소州	715	351	188	312	
델타지역	1,383	855	72	289	
걸프지역	1709	604	457	435	
(루이지아나)	726	363	242	209	
(텍사스)	983	241	215	226	234

資料 : USDA, Rice Situation 등.

의 作付可能面積은 약 200만ha로 推定된다. 따라서 史上最大를 기록한 1981년의 150만ha보다 약 50만ha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쉽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擴大餘地의 대부분이 델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에서 想定한 200만ha의 한도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米穀生産量은 200만톤이 증가한 800만톤(玄米)이 되며 國內需要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生産增加分 그대로 수출에 돌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500만톤의 수출이 한계가 아닌가 보인다. 또한 여기에서 從來의 作付體系 즉, 쌀→大豆의 2年輪作體系에서 쌀→쌀→大豆의 3年輪作體系로 바뀐다고 하면 作付可能面積은 300만ha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世界的 需給이 현저히 逼迫하여 米價가 他作物 가격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하면 쌀 생산은 1200만톤이 가능하며 1000만톤 정도를 輸出할 수 있고 美國은 世界米穀市場에서 압도적인 地位를 確保하게 될 것이다. 美國의 米作은 그 정도의 實力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Ⅲ. 國際情勢의 흐름과 日本의 事情

#### 1. GATT 新라운드(UR)의 動向

世界第2次大戰後 世界平和를 確立하기 위하여 經濟面에서의 各國의 協調體制를 強化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美國이 提案한 「世界貿易및 雇傭의 擴大에 관한 提案」을 中心으로 1947年 10월에 成立되어 1948年 1월에 先進國 11個國을 위시하여 19個國의 加盟으로 發効된 GATT는 貿易問題를 다루는 唯一한 國際機關이 되었으며, 關稅뿐 아니라, 非關稅措置, 差別待遇의 廢止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 後 各國이 차례로 加入(日本은 1955年, 韓國은 1967年)하게 되었으며 現在는 103個國이 加入하고 있다. GATT는 그간 여러차례의 大規模의 多角的, 貿易交涉을 하여 온바, 1967년에 妥結된 케네디라운드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交渉이 進行되었던 東京라운드가 있었다. 그러나 東京라운드 후 世界經濟의 變化, 貿易實態의 變化 등에 對應하기 위하여 1983年 5月 美國 윌리엄스버그 先進國頂上會談의 宣言에서 提案한 것을 始作으로 「새로운 多角的 貿易交涉의 必要性」이 提唱되어 왔다. 1985年 11月 GATT總會에서 新라운드 開始를 위한 準備委員會를 設立하고 1986年 우루과이에서 開催된 GATT閣僚會議에서 新라운드(多角的 貿易交涉)의 開始가 宣言되었으며 이 후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한다. 主要內容으로 交渉項目은 關稅, 非關稅措置, 熱帶產品, 天然資源, 農業, 세이후가드, 서비스, 知的所有權, 紛爭處理 등 14項目에 대하여 向後 4年間(1990년까지)의 交渉期間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 農業交涉에 있어서 主要國으로부터 各各의 國家事情을 反映한 提案이 나오고 있으며 基本的으로 農產物純輸入國과 그 以外の 國家들의 見解가 크게 다른 점이다. 먼저 美國, 케안즈그룹(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태국 등 農產物輸出에 補助金을 支拂하지 않는 14個 國家群)은 農產物 純輸出國의 立場에서 一定期間內(美國은 1

0年 以内)의 農業의 全面自由化(農業補助金 및 輸入障壁을 包含)를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특히, 케안즈그룹은 구체적으로 ① 農業의 保護水準을 1989年, 1990년의 2年間に 10%씩 引下할 것 ② 輸入全面禁止의 農産物은 Minimum Access (輸入最低귀타量)로서 우선 1989年度에 總消費量의 3%를 輸入할 것 등 우루과이라운드 交渉中이라도 長期的인 全面的 自由化의 第1步로서 補助의 削減 등 輸入Access의 改善(短期對策)을 實質的으로 취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美國과 對立하는 EC, 北歐諸國은 農業支持政策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어 우선 당분간은 現狀態를 凍結하고 保護의 完全撤廢가 아닌 段階的 農業補助의 削減을 主張하고 있다. 또한 이 長期的 削減에 앞서서 各國의 協調的 行動에 의하여 輸出市場의 混亂을 改善하기 위한 短期對策이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들 輸出國과도 다른 立場인 日本은 農業이 食糧의 安定供給 등 극히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배려하여 農産物輸入國의 立場을 反映하는 Rule 작성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日本 主張의 主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食糧自給率이 낮은 國家가 그 基礎的 食糧의 國內生産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輸入制限에 관한 GATT規定을 整備해야 하고 ② 輸出國에 의한 食糧制限措置에 관한 規律의 정비와 ③ 輸出補助金の 段階的 撤廢 ④ 貿易歪曲效果를 가진 政府補助金の 適切한 運營을 指摘하고 있다(農業交渉그룹에서의 日本提案 87. 12. 26 農林水産省, 農業 日本提案의 補助說明 88. 10. 13을 참조) 이와 같은 各國의 主張은 88. 12. 4-8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開催되는 우루과이라운드 交渉의 中間檢討(Review)에서 論議豫定이나 各國의 利害關係가 얽혀 쉽게 調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本은 쌀 문제를 美國에게 GATT

에서 協議할 것을 約束한 바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 日本의 쌀 事情

### 가. 食생활의 變化와 쌀의 位置

日本의 食生活은 國民所得의 水準向上, 社會經濟環境의 變化와 함께 그 內容이 豊富해지고 平均的으로 營養바란스를 취하는 소위「日本型 食生活」이라고 하는 健康하고 풍부한 食生活을 實現해 왔다. 과거의 쌀, 야채, 생선, 콩 中心의 傳統的 食生活에서 肉, 牛乳, 乳製品, 油脂, 果實 등이 첨가된 극히 다양하고 豊富한 歐美諸國과는 다른 食生活패턴을 形成하고 있다. 이와 같은 變化中에서 쌀은 消費가 1962年の 1人當 消費量 118kg(Peak임)에서 1986년에는 73.4kg으로 크게 減少하였지만 日本人의 主食으로 總供給칼로리 2,800Kcal(1986年)中 가장 많은 約 3割(28%)을 占하고 있으며, 食料品 消費支出에서도 單一品으로 아직까지는 가장 높게 占하고 있다. 生産에 있어서도 需要增加에 의한 畜産物과, 野菜 등은 生産이 擴大되었으나 쌀은 1966年, 1967年の 1,445万톤을 피크로 過剩生産으로 인한 生産調整이 進行되었다.

### 나. 日本農業에서의 稻作

日本의 農業粗生産額에서 占하고 있는 쌀의 粗生産額 占有率은 畜産物이나 青果物의 增加로 減少하여 왔지만 아직도 가장 높은 30.9%를 차지하고 있다. 1987年の 경우, 總 105,619億圓의 粗生産額中 쌀이 32,687億圓(30.9%)으로 가장 많고 畜産物 27.2%, 야채 19.9%, 果實 7.7%로 構成되어 있다. 한편 논 面積도 1988년에 289万ha로 日本의 耕地面積 532万ha中 54.3%를 占하고 있

表 7 쌀需給과 政府移越 在庫量의 推移

年 度	生 産				需 要		10 月 末 政府移越 在庫量 (万톤)
	水稻作付 面 積 (千ha)	水稻單收 (kg/10a)	生 産 量 (水陸稻) (万톤)	水 稻 作況指數	國內消費量 (万톤)	1 人 堂 供給量 (kg/年)	
1955	3,044	396	1,239	118	1,218	110.7	12
1960	3,124	401	1,286	108	1,262	114.9	44
1961	3,134	387	1,242	102	1,306	117.4	50
1962	3,134	407	1,301	105	1,332	118.3	10
1963	3,133	400	1,281	101	1,341	117.3	2
1964	3,126	396	1,258	99	1,336	115.8	1
1965	3,123	390	1,241	97	1,299	111.7	5
1966	3,129	400	1,275	99	1,250	105.8	21
1967	3,149	453	1,445	112	1,248	103.4	64
1968	3,171	449	1,445	109	1,225	100.2	298
1969	2,173	435	1,400	102	1,197	97.2	553
1970	2,836	442	1,269	103	1,195	95.2	720
1971	2,626	411	1,089	93	1,186	93.1	589
1972	2,581	456	1,190	103	1,195	91.5	307
1973	2,568	470	1,215	106	1,208	90.8	148
1974	2,675	455	1,229	102	1,203	89.7	62
1975	2,719	481	1,317	107	1,196	88.1	114
1976	2,741	427	1,177	94	1,182	86.2	264
1977	2,723	478	1,310	105	1,148	83.4	367
1978	2,516	499	1,259	108	1,136	81.6	572
1979	2,468	482	1,196	103	1,122	79.8	650
1980	2,350	412	975	87	1,121	78.9	666
1981	2,251	453	1,026	96	1,113	77.8	439
1982	2,230	458	1,027	96	1,099	76.4	268
1983	2,246	459	1,037	96	1,098	75.7	90
1984	2,290	517	1,188	108	1,094	75.3	12
1985	2,318	501	1,166	104	1,085	74.6	31
1986	2,280	508	1,165	105	1,080	73.4	103
1987	2,123	498	1,063	102	—	—	182

資料：農林水産省「作付面積調査」, 「食料需給表」, 食糧廳調査.

어 土地利用型農業의 中心으로서 地域農業의 基盤이기도 하다. 또한 稻作農家도 減少傾向이기는 하지만 1985年 355万户를 넘어 全體農家 438万户中 81%를 차지하고 또 그 중에서도 쌀을 販賣하는 農家가 8割인 272万户로서 米穀은 農家, 生産額, 耕地面積 등에서 日本農業의 가장 重要한

부분을 占한다고 하겠다.

#### 다. 過剩米와 生産調整

日本은 1970年과 1980年 前後로 過剩米가 發生하여 이를 처분하는데 약 3兆円이 들었으며 最近 4年間の 豊作('84~'87)으로 第3次 過剩米發生의

우려마저 있다. 이와 같은 過剩米防止를 위한 生産調整은 1971년부터 實施하여 왔으며 그 自體도 엄청난 財政負擔(年間 약 2千億圓)이 들었다. 1987년부터는 논 77萬ha를 轉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米穀生産面積의 3割에 가까운 것으로 더 이상의 擴大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쌀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日本政府는 1988年度에 약 400億圓의 緊急消費擴大策을 實施하고는 있으나 効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轉作面積은 늘릴 수 없고 消費增加도 期待할 수 없다면 結局 食管制度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즉, 全量管理制度에서 部分管理制度에의 方向轉換이 必要하며 이는 政府의 財政赤字解消와 함께 앞으로 日本의 食糧問題를 다루는 主要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 內外壓力和 政府收買價引下

日本政府는 1988年 7月6日 1988年産 米穀의 政府收買價格을 4.6% 引下하는 것으로 決定하였다. 이는 1987年의 5.95% 引下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生産者米價는 계속 引下하겠다는 政府의 意思表示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米價引下는 間接的인 生産調整의 効果도 있지만 특히, 小規模 米作農家는 生産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고 이들의 耕作畝이 中核農家에로 農地의 流動化가 이루어지며 生産性이 向上될 수 있고 따라서 國際競爭이 可能한 쌀 生産으로 이어져 앞으로 다가올 쌀 市場開放에 적극 對應한다는 것이다. 또한 國內的으로는 그간 米穀管理로 인한 財政赤字를 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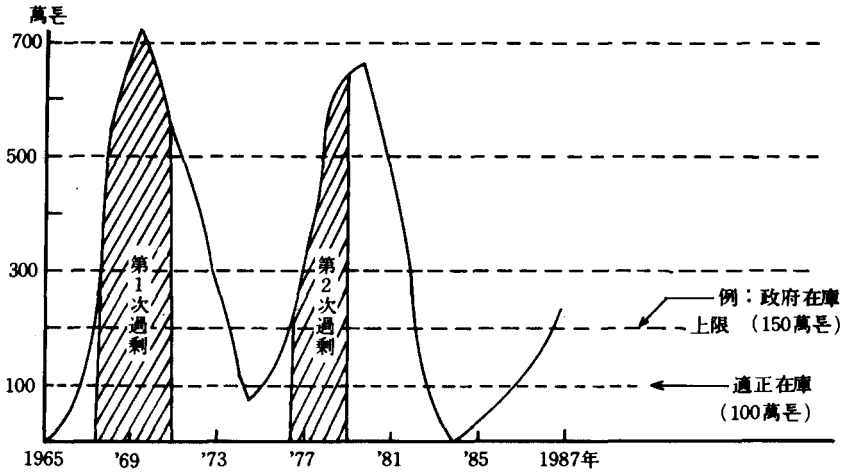
表 8 쌀生産調整의 實績

		目 標		實 績		目 達 成 率 (%)	
		要調整數量 (萬噸)	目標面積 (千ha)	調整數量 (萬噸)	調整面積 (千ha)		
稻作轉換對策	1971	230	—	226	541	98	
	1972	215	—	233	566	108	
	1973	205	—	230	562	112	
	1974	135	—	130	313	98	
	1975	100	—	108	264	111	
水田總合利用對策	1976	( 90)	215	—	194	91	
	1977	( 90)	215	—	212	99	
水田利用	第1期	1978	(170)	391	—	438	112
		1979	(170)	391	—	472	121
		1980	(245)	535	—	585	109
再編對策	第2期	1981	(295)	631	—	668	106
		1982	(295)	631	—	672	107
		1983	(280)	600	—	639	106
	第3期	1984	(290)	600	—	620	103
		1985	(280)	574	—	594	103
		1986	(290)	600	—	618	103
水田農業確立對策	前87 期89	1987 (전망)	(365)	770	—	796	102

資料：農林水産省「水田利用再編對策 實施狀況」等.

註：第3期 要調整數量中 他用途利用米 生産이 포함.

그림 3 古米在庫의 推移



資料：農業白書附屬統計表 (1987年度)에 의하여 作成

소할 뿐 아니라 生産者 米價에서 美國의 6배, 消費者 米價에서는 3배나 하였던 内外價格差를 縮小시켜 國內消費者에게 보다 低價의 養質米를 供給할 수 있고, 또한 減少를 계속하고 있는 쌀의 消費추세를 完化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理由는 앞으로의 쌀 市場開放에 對應하는 國內 生産農家의 體質強化에 있다고 하겠다.

#### IV. 日本의 選擇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의 쌀 市場開放 問題는 國內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國內의 輿論이 兩分된 狀能에서 選擇의 어려움은 더하다. 生産者團體인 農協을 中心으로 하는 反對立場에서의 見解는 먼저 美國의 對日貿易赤字의 主要原因이 工業製品이므로 貿易摩擦의 責任을 農民에게 轉嫁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美國自身도 14개의 農産物이 웨이버 品目으로 輸入을 制限하고 있을 뿐 아니라 日本은 美國의 最大 農産物 輸入國으로 美國 農業의 最大 顧客이며, 日本의

消費者團體들도 이에 同調하고 있고 일단 조금이라도 開放하면 결국 完全自由化할 수밖에 없는 開放도미노論(牛肉, 오렌지 交渉이 그렇게 되었음)을 들어 結果적으로 日本의 農民만 희생된다고 보고 강한 反撥을 하고 있다. 한편 經團連을 中心으로 하는 財界는 國際貿易上의 GATT規定, 世界經濟에 따르는 内外價格差의 擴大, 國民의 食生活의 多樣化 등을 考慮하면 어느 程度의 輸入 쿼타量의 設定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世界的인 農産物貿易의 Rule을 作成하는데 日本이 主導的 役割을 하기 위하여서도 쌀 市場開放의 基本方針(輸入쿼타設定)을 表示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強調하고 日本이 GATT의 場所에서 美國이나 EC의 農業保護를 批判하면서 「쌀만은 特別取扱으로 해 달라」는 것은 國際적으로 通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日本政府는 輸入開放의 選擇에 점점 直面해 가고 있다.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多角的 貿易交渉을 擇하는 方法이 있겠다. 이는 美日 모두가 現在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展望이 밝지는 못하다. 그중 케안츠

그룹이 내놓은 案을 받아드리게 되면 당장 日本은 1989年中 總消費量의 3%인 약 30萬톤을 輸入해야 하며 이는 完全自由化의 期間이 짧아질지도 모르는 憂慮가 있다. 日本으로서 UR交渉이 끝나는 1990년까지는 우선 論議程度로 이끌고 나갔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美國이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 豫想되므로 어떠한 形態이든 約束(Commitment)을 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直接的인 二國間 交渉을 擇하는 방법이다. 이는 新通商法 301條의 報復措置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나 日本國內의 反撥이 극심할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오히려 美國과 直接함으로 하여 UR 등에서 보다는 長期的인 開放日程을 얻어 낼 可能性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方法을 拒否하여 美國과 正面對決하는 것으로 結果적으로는 Super 301條에 의한 報復措置를 당하는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日本으로서 政權基盤이 되는 農民 뿐 아니라 國民全體의 支持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一部 產業界는 報復措置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나 과거 301條의 報復措置로 인한 損害가 약 3億拂 정도 지나지 않아 全體 貿易 赤字의 7~8百億拂에 비하면 그다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쌀 市場開放問題를 보

다 長期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長點도 있다. 그러나 日本이 어떤 方法을 選擇하든 開放은 時間上의 問題인 것이다. 다만 어떤 選擇이 보다 長期的이고 有利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日本으로서 충분한 時間적 餘裕를 가지고 國內生産構造의 調整을 하여 國際競爭力이 있는 産業으로 育成하여 日本의 主食인 쌀을 安定的으로 生産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日本의 選擇이 어떠한 形態로든 쌀의 市場開放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은 必然的 事實임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 參 考 資 料

- 戶田博愛 現代日本の 農業政策, 1986. 9.  
 農業貿易問題研究會編, どうなる世界の 農業貿易, 1987. 4.  
 農政調査委員會, 日本の農業—日本の 農産物貿易問題 67, 1988. 3.  
 全國農業協同組合中央會編集, アメリカの 農業, 1984. 3.  
 \_\_\_\_\_ ガシトと 農業, 1987. 3.  
 關下念 日米貿易摩擦と食糧問題, 1988. 3.  
 食糧廳, と日本の食糧管理の現狀(概要), 1988. 11.  
 農林統計協會, 昭和62年度 農業白書附屬統計表, 1988. 4.  
 Food Outlook FAO Nov, 1988.  
 日本讀賣新聞 및 日本農業新聞 多數.